

영혼의 어두운 밤

성경말씀: 렘20:1-18

지난주: 예레미야의 시청각 교육(16장), 유다의 죄: 철필과 금강석 축, 두 종류의 사람: 사람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마음이 문제다(17:9-10),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 마음을 고칠 수 있다. 라이켄의 예레미야 강해,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18, 19장)

18장: 토기장이가 진흙을 물레 위에 놓고 물건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18:6-10).

선민이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구원받아도 징계가 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함(18-23). 22절

19장: 토기장이의 질그릇 병을 가지고 힌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 병을 깨뜨림(10-12절).

이 도시를 향해 선언한 모든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리라(15).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

예레미야는 “타어나기도 전에 대언자로 세웠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1:6), “내가 네 입에 주는 말과 명령을 그대로 전하라”(1:7).

내가 너를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늦 성벽’이 되게 하여 아무도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1:18-19). 그 이후에 그는 신실하게 고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왕, 종교인(서기관, 대언자, 율법 박사), 백성, 친척, 아내도 못 두고 아이들도 없다. 모두가 그를 기피한다.

렘18, 19장의 예레미야의 대언을 들은 임멜의 아들 바스홀(주의 집의 우두머리 감독 1절)은 그를 체포하여 차꼬에 밤새도록 가둠. 단순한 차꼬가 아니라 발과 손을 비틀어 고문하는 형틀이다(주리).

예레미야의 일생에서 이처럼 비참한 날은 없었다.

가장 처참하게 모든 것(지존심, 명예, 육체)이 찢어지는 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20장을 기록함 백성이 핍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우두머리가 말씀을 대언했다고 주리를 툴.

미안했던지 바스홀은 다음 날 아침에 그를 놓아 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3-6)

이 대언에서 처음으로 바빌론과 바빌론 왕이 언급됨. 이후로 바빌론은 200여 차례나 더 나옴.

예레미야의 등과 손과 발이 피가 나고 아프지만 바스홀과 그의 동료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됨.

바스홀의 뜻: 사방에서 열매를 맺는다. 새 이름 마골밋사빕(3절):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그 처참했던 어두운 밤에 예레미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오게 마련이다(딤후3:11-12). 이 예를 통해 배워야 한다.

교훈1: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감

예레미야의 낙담의 원인

1.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10절).

증상모략: 예레미야의 품위를 깎아내림, 서로 예레미야에 대한 나쁜 말을 전하려 함.

심지어 친구들도 그가 대언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라며 원수를 갚으려 함.

2. 날마다 조롱거리가 됨(7), 코미디 프로의 단골 메뉴(질그릇 병을 깬다, 원수가 온다 다 거짓말이다).

바스홀이 마골밋사빕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마골밋사빕이다(10절).

3. 친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인 주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7). 나를 속인 것 같다.

'방벽을 세운 도시', '쇠기둥', '늦 성벽'은 커녕 지금 옥에 갇혀 주리가 틀리는 형벌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대언한 말이 맞는가? 나는 진짜 대언자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는가? 가족과 친구들이 등을 지는가?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가? 손발이 찢어지고 등이 부은 상태에서 그는 여전히 주님께 기도한다.

“오 주여...”(7절),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특권: “오 주여” 시27:7-8

욥(재 가운데 앉아서 욥3), 엘리야(로렘나무 밑에서 왕상19:4-5), 다윗(사울을 피해 동굴에 들어가 시57), 요나(고래 배 속에서, 2장),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마27:46)

을 한해에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솔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 “오 주여”

교훈 2: 뼈 속에 사무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다. 100%는 아니고 그럴 때가 있다.

백성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8절).

그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그의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래서 그는 해결책을 강구한다: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9절). 대언자를 포기한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지.”

그런데 그는 불가능한 것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번복한다.

9절 후반부: 그분의 말씀이 뼈 속에 타오르는 불같이 간혀서 도무지 뜨거워서 그만둘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문맥에 상관없이 목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으로 취함.

실제로 주님의 말씀은 끝 수 없는 불로서 설교자의 뼈 속에 들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사정은 다르다. 그는 지금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불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 목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거짓 대언자들: 평강(6:14; 8:11), 기쁨, 복, 성전 건축, 주일 성수, 십일조

우리가 해야 할 말: 예수 불신 지옥,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 성경적인 신약 교회,

우리에게 이것이 타오르는 불 같이 마음속에 뜨겁게 들어 있는가?

핍박과 학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마5:10-11)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요16:1-2, 33)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성경 번역의 어려움: 친구들이 등을 지고 배반한 목사의 조언: 이것도 성경 번역자가 져야 할 짐, 아멘!

교훈 3: 고난 속에서도 주께 경배함

육신의 고통 속에서, 낙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였다(11-13).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그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한다(11절).

도움을 구한다(12절)

찬송을 부른다(13절): 바울과 실라처럼(행16:25)

고난당할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교훈 4: 성도의 삶은 이중적이다(14-18)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4-18절은 찬양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한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황당해서 14-18절은 원래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니다. 14-18절은 여기에 속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다(스끼조프레니아).

우리는 의인이며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래서 찬양하다가도 불평한다.

이 구절은 가장 좋은 성도라도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엘리아의 죽여 주소서.”와 함께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

그는 핍박의 원인을 알고 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가 당하는 모욕을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에게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다. “왜 나는 살고 있는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을 갖기 원한다. “왜 나는 21세기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1:5).

예레미야는 모태까지 올라갔으나 하나님은 모태 전에 창세 전에까지 올라가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롬8:28).

창세 전에 구원과 사역을 주신다. ‘진실되게 하소서’ 시 낭독